부산발 인천발 노선 모두 포함후쿠오카 6만4700원부터 등8월말까지 여름휴가 시즌 가능  
  
  
  
  
  
  
  
에어부산이 부산발·인천발 국제선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한다. 정상가 대비 최대 95%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17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프로모션 항공권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일본 노선 판매를 시작으로 21일 오전 11시 중화 및 동남아 노선 판매가 차례로 진행된다. 구매는 이달 31일까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·앱을 통해 가능하다. 탑승 가능한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내 노선별로 좀 차이가 있다.프로모션 항공권은 김해공항 출발 노선 기준 △후쿠오카 6만 4700원 △마쓰야마 6만 9700원 △오사카 7만 9700원 △도쿄(나리타) 9만 9700원 △마카오 9만 9900원 △보홀·타이베이·가오슝 각 10만 9900원 △삿포로 11만 9900원 △방콕 12만 9900원 △다낭 15만 3600원 △냐짱(나트랑) 16만 3600원 △비엔티안 16만 9900원 △코타키나발루 17만 3600원부터다.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△후쿠오카 5만 9900원 △오사카 7만 9700원 △도쿄(나리타) 10만 5900원 △삿포로 11만 5900원 △비엔티안 13만 700원 △방콕 13만 1300원부터 판매한다.이 가격은 편도 기준으로 공항 이용료와 유류 할증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.에어부산 관계자는 “이번 프로모션은 에어부산이 주력으로 운항하는 일본은 물론 중화 및 동남아 전 노선이 대상”이라며 “일찌감치 여름휴가 시즌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는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